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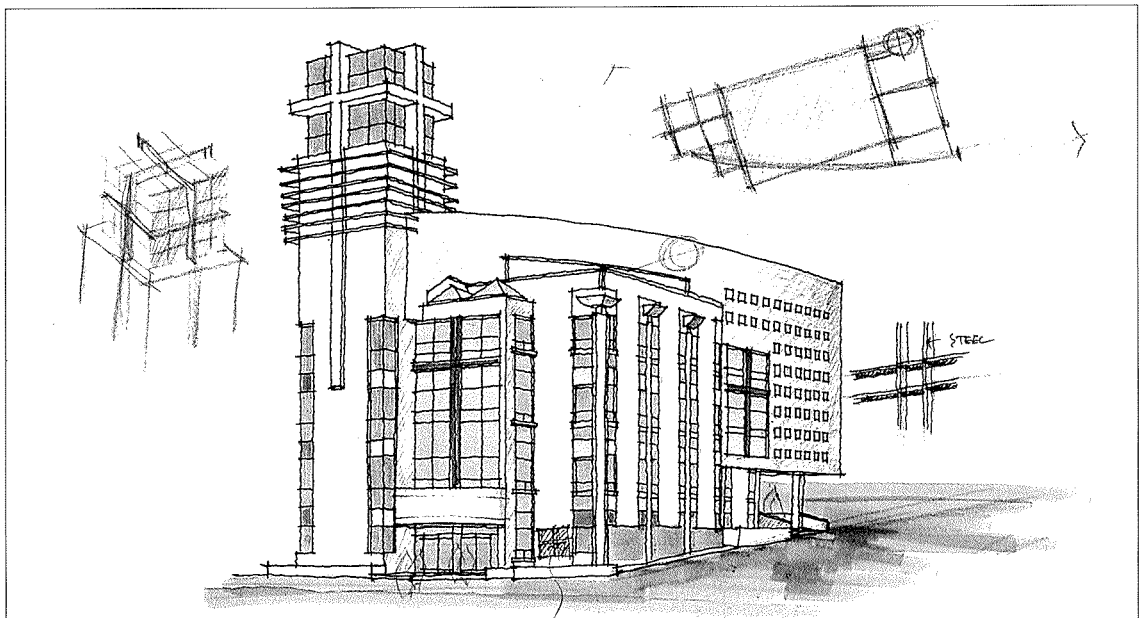
진리의 등대 - 성복교회 Lighthouse of Truth - Sungbok Church

이성인 / (주)삼익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by Yi Sung-In

성복교회는 필자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당이다. 약 15년전에 지어진 현재의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주변의 부지를 추가매입하여 현재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배당 건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기계화되고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좀더 자연과 친화되고, 부드럽고, 전원적인 예배공간을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위치에 그대로 건축키로 결정되었다. 사실 필자는 이 프로젝트를 맡지 않으려고 꽤나 노력(?)했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속에서 내가 생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감 없게 하

고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지만 그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늘 후회스럽고 창피하게 생각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게 되는 나의 버릇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느 것 하나 내 작품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하지 못한다.

성복교회를 디자인 하기로 결심하고 새로 건축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교회지도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을때 필자의 생각과는 너무나 이질된 고정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이 추천하는 경남



스케치

〇〇시에 있는 신축 모 교회당을 답사해 보았을때 나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온통 외장은 대리석물갈기로 뒤덮여 번들거리고 있었고 디자인 개념은 찾아 볼 수도 없는 웅장하고, 뾰족 지붕과 장식적인 삼각형 조각물로 뒤덮인, 엄청난 시공비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변종된 한국형 고딕스타일(?) 그 자체였다. 교회는 높게 지어야 하고 종탑은 뾰족지붕으로 그위에는 붉은 네온 십자가가 빛나야 하며, 창문은 아치(Arch)창문으로 대리석이나 붉은 벽돌로 외장을 꾸며 자태를 뽐내며 기난한 자나 억눌린 자들에게는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기대를 보기 좋게 짓밟고 있었다.

교회지도자들의 이런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 무척 긴 시간 동안 노력해야 했다. 교회건축에 관한 책자들을 구입하여 선물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잔뜩 들고가 소개하고, 국내의 의식있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투쟁(?) 해 나갔다.

이 프로젝트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몇가지로 대별되었다. 작은 부지지만 대예배실은 450석이상 계획되어야 하며 각 그룹별 집회장소가 충분히 계획되어야 하고 친교실, 식당, 주방, 소예배실 등 각종 예배와 친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충분히 옥외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기계식 주차장은 지양한다는 것. 소규모 교회지만 면적활용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 등 꽤나 어려운 요구사항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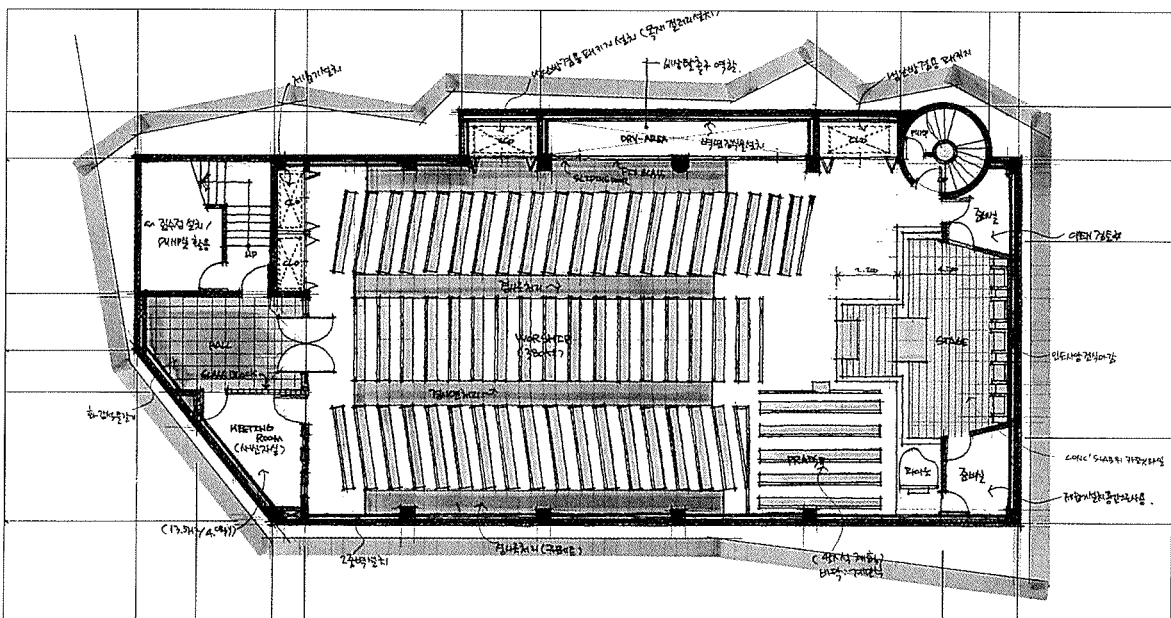
작은 부지에 450석 이상의 대예배실을 계획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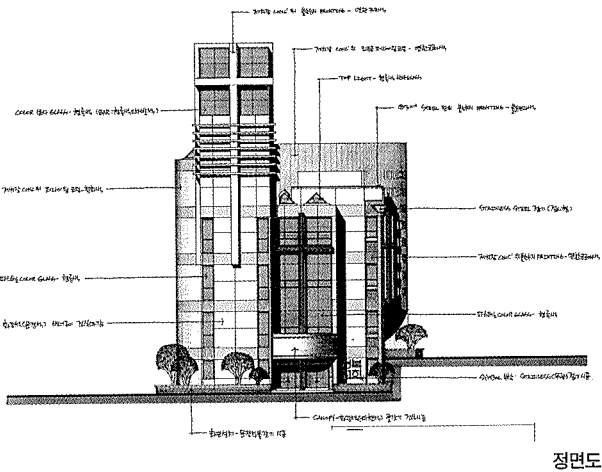
투시도

서는 지하층 예배실을 구상하여 중층 형식의 예배실을 계획해야만 했다. 고대 로마시대의 카타콤을 생각하면서 지하예배당의 문제점인 습기문제, 환기, 채광, 지하로서의 침울한 분위기 등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채광을 위해 전체 층고를 8.4m로 하여 중층을 지상1층으로 계획하여 주출입구에서 바로 중층으로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이나 장애자들을 위한 좌석으로 구상하고 채광, 환기 등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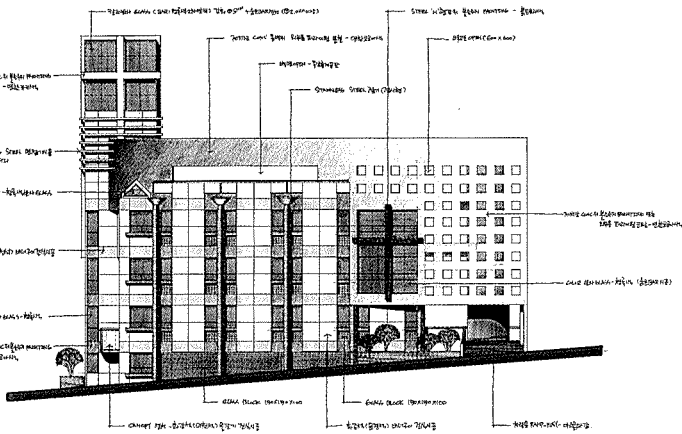
지하층 드라이 에리어(Dry-Area)를 크고 넓게 구상 하되 지하층 바닥까지 거대한 유리로 처리하여 지하층으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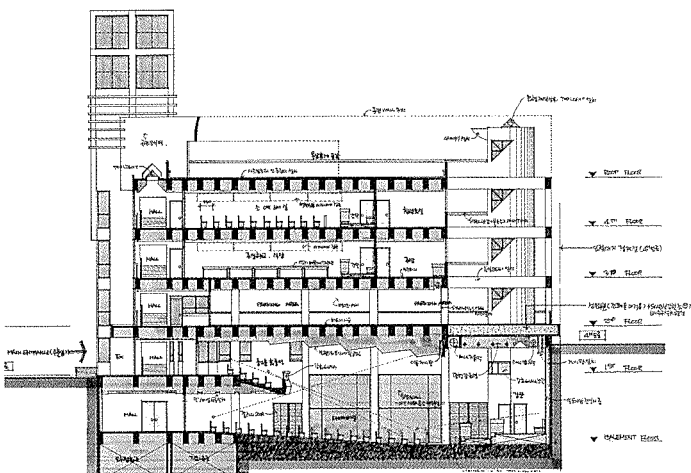
지하층 예배실



정면도



우측면도



단면도

연채광되며 빛물도 그 바닥까지 떨어지도록 하므로써 지하층의 이미지를 바꾸려 했다. 특히 그 창문내부 드라이에리어 벽면에 대형 벽면 장식물을 설치하여 종교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상2층은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도로면에서 진입하는 주차공간을 형성하므로써 2층 바닥과 옥외 마당공간을 일체화하여 전체를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다. 3, 4층은 식당, 교육시설, 소예배실, 각종 소그룹실 등을 계획하고 옥상은 조경시설과 함께 옥외예배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 기도자, 찬양대의 동선과 신도들의 출입동선을 구분하여 강단옆에 원형 오픈(Open) 계단으로 예배인도자 동선을 유도하여 그 계단으로 진입하는 예배인도자들을 예배를 준비하는 신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외관은 단순하고 명쾌하면서도 상징성을 부여하려 했다.

최대한의 면적활용을 위해 사각형의 평면을 구상하면서 큰 원의 평면요소를 도입하여 서로 결합되는 구성을 시도했다. 특히 종탑 부분은 등대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인생의 어두운 향해 속에서 교회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표현하려 했다. 그래서 4개의 십자가가 서로 겹쳐진 형태의 여백부분을 유리(Glass)로 처리하여 밤에는 십자가 주변의 유리에 불이 밝혀지므로써 십자가 형상이 네가티브(Negative)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예배당은 소박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엄숙함, 경건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몇 개의 교회작품이 자주 떠올랐다. 돌마루공소도 자주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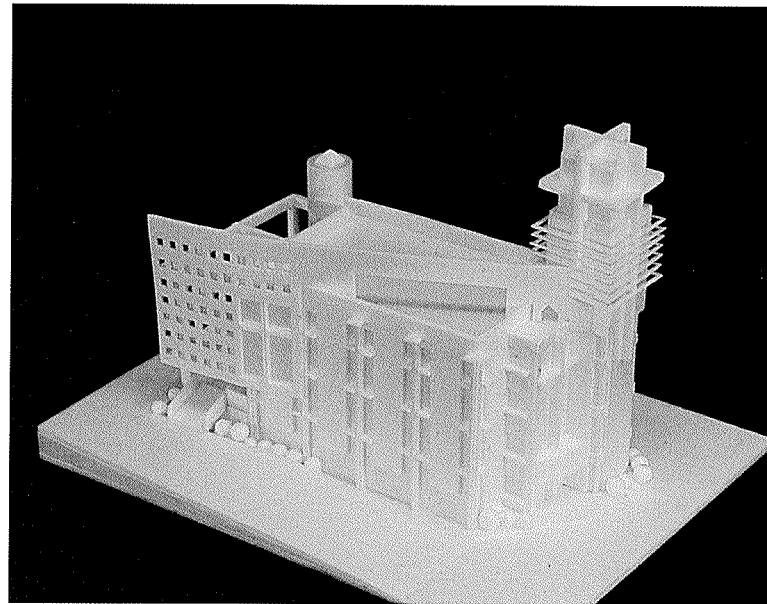
긴긴 시간동안 건축주를 달래고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하고, 공갈(?)도 치고, 고집도 부리면서 의식 바꾸기에 노력하면서 현재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다.

현재의 프로젝트가 완공되고나면 나는 또한번 의식 바꾸기에 시간을 투자하려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 교회를 지역사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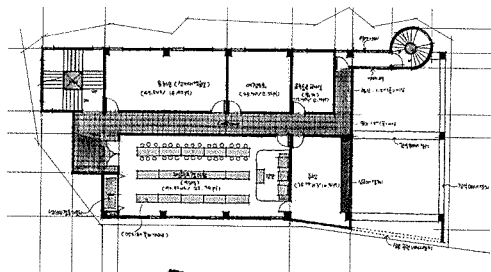
평일의 주차장 개방, 무료 결혼식장소 대여, 연극·영화공연, 노인대학 개설,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등을 고집해 보려한다.

그것들이 현대교회가 해야할 진정한 선교사업이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가는 먼저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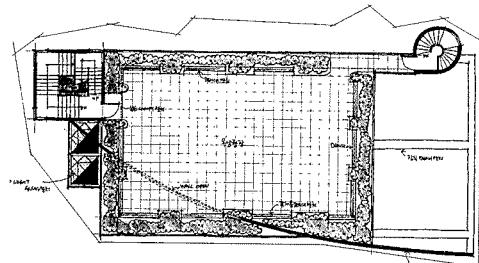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 663-5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53.39㎡(167.4평)
 건축면적 320.67㎡(97.0평)
 연 면 적 1,539.06㎡(465.57평)
 건 폐 율 57.9%
 용 적 륜 199.96%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층 수 지하2층, 지상4층
 최고높이 29.0m
 외부마감 화강석(문경석)버너구이+드라이비트(연한 갈색)+컬러복층유리(청록색)+유리블록
 내부마감 드라이비트+붉은벽돌+목재리브판+석고 보드워 퍼라이팅
 설계담당 김성래, 홍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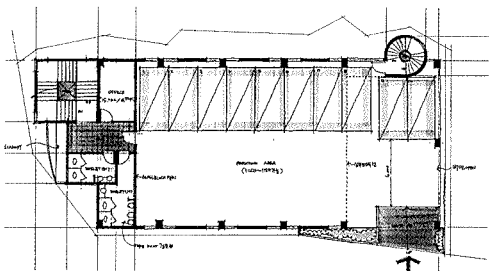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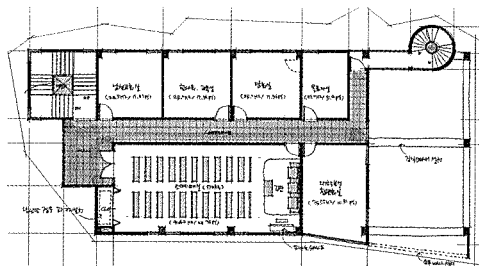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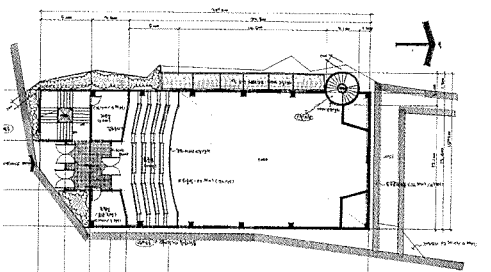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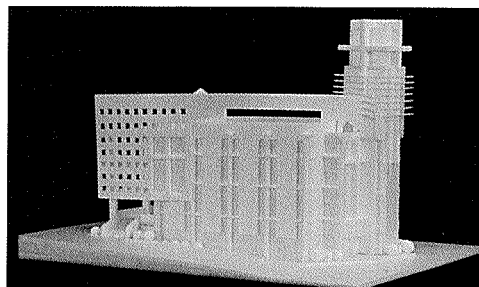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모형도 2